

한영 참여 예술 자료집

www.britishcouncil.org



목차

들어가며	3
영국의 참여 예술	6
영국 참여 예술의 흐름과 현황	6
기고 1 수 마요 - 영국 참여 예술의 발전	8
기고 2 카라 커리지 - 만들어 가는 역사: 영국의 사회 실천 예술	12
사례 1 매직 미	17
사례 2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24
사례 3 왕립음악원	29
사례 4 휘트워스 갤러리	36
사례 5 한영 교류 프로그램 -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40
한국의 참여 예술 사례	43
사례 1 배다리	43
사례 2 안정리	46

들어가며

영국 최고 권위의 현대 미술 상인 터너상 (Turner Prize)은 영국 출신 또는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가 중 한 해간 가장 괄목할 만한 작품을 선보인 자에게 수여하는 현대 미술상으로, 1984년에 제정된 이래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데미언 허스트 (Damien Hirst), 스티브 맥퀸 (Steve McQueen) 등에게 수여되었다. 지난 2015년에는 18명의 20 ~ 30대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모인 예술가 그룹인 어셈블 (Assemble)이 단체로 터너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들의 수상을 이끈 작업은 영국 리버풀 그랜비 스트리트의 재생을 위해 주민들과 협업하여 진행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그랜비 포 스트리트(Granby Four Streets)’였다.

근래 관객의 참여 혹은 커뮤니티와의 협업 과정을 동반한 현대 예술 작품 또는 예술 행위가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참여 예술 (Participatory art), 협업 예술 (collaborative art), 인터랙티브 예술 (Interactive art), 사회 연계 예술 (socially-engaged art), 커뮤니티 기반 예술 (community-based art)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예술 형태가 미술관이 작품을 전시하던 전통적 행태의 변화를 야기함은 물론 어느새 예술계의 한 영역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

본 자료집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서 가장 급부상한 예술 형태로서 참여 예술의 흐름을 간략히 조명하고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영국문화원의 초청으로 참여 예술을 통한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한국에 소개한 바 있는 영국의 예술 자선기관 매직 미 (Magic Me), 2019년 초청된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왕립음악원 등 영국의 예술 기관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와 함께 교류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커뮤니티와 함께 창작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소개될 사례들에는 가능하면 노인들을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자 했다. 영국문화원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커뮤니티 중 그동안 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소외되었던 노인들이 어떻게 참여 예술의 주체로서 포용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예술과 고령화라는 주제로 영국의 사례들을 한국에 소개했고,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매직 미의 방한 시〈끼리 넘어 우리: 예술을 통한 세대 간 공감〉토크 프로그램에서 함께 발제된 경기문화재단의 안정리 프로젝트와 스페이스 빔의 배다리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 한국의 사례도 몇 가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의 다양한 사회 참여 행태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2015년 도시재생
공공 프로젝트 터너상 수상작

어셈블 (Assemble)

어셈블은 18명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콜렉티브로 주거, 문화, 공공의 영역을 재생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동안 버려진 주유소를 영화관으로 바꾼 시네롤리움(Cineroleum), 런던 동부의 인적이 드문 낙후된 고가도로 밑을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폴리 포 플라이오버(Folly for a Flyover)’, 문 닫은 설탕 공장을 개조하여 워크숍 공간으로 만든 슈가하우스(Sugarhouse)와 야드하우스(Yardhouse), 폐업한 공중목욕탕을 개조하여 만든 골드스미스 현대미술센터(Goldsmiths Contemporary Art Centre)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터너상을 수상한 그랜비 포 스트리트(Granby Four Streets) 프로젝트는 한때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호황을 누렸으나 80년대 이후 대량 실업과 빈곤으로 황폐하게 전락해버린 영국 리버풀 그랜비 스트리트의 재생을 위해 주민들과 협업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로 어셈블은 정기 워크숍을 열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들과 함께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가 복원되고 활기를 되찾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은 공사에서 나온 폐건축 자재로 공예품과 재활용품을 만드는 워크숍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Assemble Group Photo 2014 © Assemble

들어가며

영국 참여 예술의 흐름과 현황

참여 과정이 예술이 되는 행태와 다양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된 결과로서의 작품을 모두 포함하는 참여 예술의 근원은 20세기 초반 실험예술 정신으로 시작된 미래파 예술가(futurist)와 다다(dada)의 행위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영국과 북미권 작가들이 스튜디오 밖을 벗어난 예술 행위를 본격적으로 벌이면서 완성된 예술품만이 예술시장의 주류를 장식하던 시대를 넘어 포스트 스튜디오(Post-Studio) 예술 활동이 차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앨런 캐프로(Allan Kapraw)의 '해프닝(happenings)'이 대중성을 얻었다.

1960년대 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라 창작자의 계층이 보다 다양화된 영국에서는 주류 예술계를 쫓기보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예술 행위의 중점에 두는 앰버(Amber), 프리 폼(Free Form), 그리니치 뮤럴 워크숍(Greenwich Mural Workshop) 등의 급진적인 커뮤니티 예술가 그룹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이 추구하던 커뮤니티 예술(Community Art)은 1970년대 지역 캠페인, 사회운동 등과 함께 그 영역이 넓어졌으나, 신자유주의 예술이 우세한 1980년대까지 주류 예술계와 급진적인 커뮤니티 예술 그룹 간의 긴장감은 계속되었다.

개인주의가 부상한 1990년대에 들어 커뮤니티 예술은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칭해지며 보다 비정치적이고 개인에 집중된 포스트 스튜디오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기존 예술계와 사회 공동체 간의 다양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7년 노동당 정부를 맞이한 영국은 예술 정책의 두 가지 목표로 예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선언하였고, 특히 사회적 목표로는 도시 재생과 사회적 배제 방지를 지목하게 되었다. 이같이,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 수준의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잠재력에 집중한 정부의 추진 정책 및 다양한 재단의 지원 기금을 통해 사회적 화합을 목적으로 한 참여 예술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장려되었고, 노동당 정부 10여 년(1997-2010)간 영국 내 정부 지원 예술문화진흥 기금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더불어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예술 관련 기금 분배의 전반적 동향은 물론 예술 제작과 시연의 전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다양성과 접근성을 예술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현재 영국 예술계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재정 위기 이후 영국 정부와 대형 재단이 제공하는 주요 예술 기금이 대폭 삭감되긴 하였지만, 다양한 사회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간의 접합점이 생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신체 및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복지관을 방문하여 예술 활동에 참여하라는 예술 처방이 내려지면서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널리 진작되었으며, 예술을 통한 보건 증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수집된 결과 2018년 예술 처방을 위한 영국 보건 예산으로 한화 약 67억 원(GBP 4.5M)이 책정되기도 하였다.

기고 1.

영국 참여 예술의 발전

수 마요 (Sue Mayo)

골드스미스 대학, 연극과 교수

참여 예술의 폭과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해서 한 편의 글로 요약해 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 이 역동적인 분야의 발전과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추려보려고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시각 예술가와 함께 인형을 만드는 어린이들, 이웃에 대한 캠페인 영화를 만드는 노인들, 디제잉을 배우거나 음악을 녹음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 또는 중등학교 어린이에게 작곡에 대해 소개하는 오케스트라 출신의 음악가들을 언제나 목격할 수 있다. 많은 주요 예술 단체들이 ‘교육’, ‘참여’ 또는 ‘주민 지원’ 부서가 있으며 모두 비전문가와 협력하여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려 한다. 또한 많은 소규모 조직과 개인들도 참여 및 공동 작업을 실천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런 활동의 주요 특징,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 및 예술가와 참여자가 얻는 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한다. 참여 예술은 전문 예술가와 비전문 예술가가 함께 일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들이 함께 작업하는 이유와 의도는 상황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과 역시도 크거나 작을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을지도 선택에 달려있다. 참여 예술의 핵심은

‘함께 창조’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그동안 매우 지배적이었던 예술 제작에 대한 개념과 매우 다르다. 그동안 예술은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고 종종 일부 관객들을 위해서만 제작되었다. 물론 이런 예술 제작 관행은 음악, 무용, 연극, 시각 예술 등을 창작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될 것이지만, 참여 예술은 다른 종류의 것들, 예를 들어 대화, 접근성, 표현 및 사회적 참여 등을 더욱 중시한다.

대화 중심 학습(Dialogue in learning)은 1960년대 브라질의 교육자이자 20세기 대표적 교육사상가 파울로 프레이리(Paolo Freire)가 전문 지식을 가진 교사가 ‘비어 있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쏟아붓는 이른바 ‘은행 저금식’ 교수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학습 모델이다. 프레이리는 대화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참여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가를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는 참여자의 지식, 기술, 경험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예술가가 아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도 단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것이 많으며, 참여자와 함께 작업하는 데 있어 참여자가 실제로 작품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대화에 대한 필요성은 종종 문화와 지역 사회의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가 이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 의해 들려질 때 인지하게 된다. 참여 예술은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이를 가치 있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런던에 위치한 스페어 타이어 극단(Spare Tire Theatre Company)은 노인들을 위한 드라마 워크숍을 운영한다. 60 세 이상의 노인들은 연극에 대해 경험하고 싶어서 또는 친구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한다. 한 번은 예술가가 참가자들이 병원에서 겪었던 어려운 경험에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참가자들은 병원에 있을 때 때때로 직원들이 자신들을 혼낸다고 느끼거나 자신들을 간과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보냈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극단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수라장(Bedlam)’이라는 공연을 만들기로 한 후, 커뮤니티 센터를 돌며 공연하고 더 나아가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책임자들에게도 공연을 보여주었다. 전문 배우들이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공연을 제작했다는 것은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 목소리를 의사 결정자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점에서 공연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모든 참여 예술 작품이 대중을 위한 공연, 출판 또는 전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고립과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참여를 통해 자신감과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나 장애 또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함께 만나고,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런던 남부에 위치한 알바니 아트 센터 (Albany Arts Centre) 내의 엔텔레키 아트 (Entelechy Arts)는 매주 밋 미 앳 알바니 (Meet Me at The Albany) 프로그램을 통해 일 년 내내 노인들이 서커스, 시, 공예와 노래 등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아트 센터 내 카페 옆 공공장소에서 진행된다.

밋 미 알바니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개방적이고 친근한 장소에서 개최되며, 모든 참가자의 접근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이 사람들의 참여를 쉽게 만든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 예술은 종종 예술, 건강, 사회적 응집, 재생, 정치적 행동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교차하며 벌어진다. 극장, 갤러리 및 박물관과 같은 예술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거리, 병원, 학교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도 일어난다. 때로는 전통적인 공간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데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종종 작업을 이끌어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온 사람들의 어휘를 배우고, 또한 예술가의 어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크리에이티드 아웃 오브 마인드(Created Out of Mind)는 치매 환자와 함께 진행된 예술 프로젝트이다. 이 3년간의 프로젝트에는 과학자, 예술가, 임상사, 치매 환자 및 간병인이 함께 했다. 이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모든 종류의 전문 지식이 존중되고 모든 종류의 경험이 공유됨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그동안 연구의 대상으로만 치부되었던 치매 환자와 간병인이 있으며, 이들 역시 전문가로 간주한다.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은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느슨하다. 이런 식으로 참가자들을 계획된 활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활동을 맞추는 방식이다. 참여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은 무용가, 작가, 음악가 등처럼 자신만의 예술적 실천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 점점 참여적인 예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예술가 자신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숙련이 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어떤 예술가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전문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공동 창작에서 예술가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분야의 파트너와 의사소통하고 참여자 그룹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참여자들이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결과물을 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구조가 너무 단단하면 대화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예술 형식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상호 작용을 즐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놀라고, 영향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많은 예술가들은 이런 방식의 작업이 자신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이로 인해 어떻게 자신의 작업 더욱 풍부 졌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엄격한 방법론에서 훨씬 더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참가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빙 메모리 무용단(Moving Memory Dance Theatre)은 노인 여성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력과 균형감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반영하는 과정이다. 무용단은 아트 센터 및 양로 시설에서 워크숍과 레지던시를 운영하며, 또한 무용단 내 노인 무용수 그룹은 창작 작업을 통해 우리가 가진 나이와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다. 무용단의 활동에는 건강과 웰빙을 위한 움직임, 몸에 담긴 상상력과 이야기를 표현해 내는 것,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서의 라이브 공연이나 디지털 작업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감을 느낀다. 즐겁게 웃을 수 있다.”, “일반적인 운동 수업과는 다르다. 우리가 만든 것에서 창의성을 발견한다.”, “우리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신뢰감이 쌓인다.”, “재미와 배려 사이의 균형”,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느낌”, “내면에 불이 켜진 것 같다. 신체적 능력과 상상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성취감은 엄청나다.”

이런 의견들을 통해 우리는 참여 예술의 의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자신감을 북돋우는 것,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 능력의 개발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말이다. 이런 복잡성 속에서 풍부하고 혁신적이며 다양한 창의적 작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때로는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이 아마도 참여 예술의 정체성일 것이다.

기고 2.

만들어 가는 역사: 영국의 사회 실천 예술

카라 커리지 (Cara Courage)

박사 / 테이트 익스체인지 본부장

현재의 상황

영국에서 사회 연계 예술(Socially-concerned art)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궤적을 반영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실천을 할 것인지 또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맥락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 참여 예술은 실제로 적용되고, 경험되고, '행동'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만들어가는 역사'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과 과정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독일 예술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는 '모든 예술은 유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그가 만든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이라는 중요한 개념의 핵심 전제였다. 그는 모든 유기체는 예술 작품이고,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며, 예술은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영국에서 '사회 실천 예술(Social practice)'로 (미국에서는 '사회 참여 예술(Socially-engaged art)'로) 자리 잡았다. 이 글이 주로 영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대서양을 횡단하는 예술 운동의 일부였던 사회적 실천 예술은 성숙되어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독립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밖으로 나오기

다다이즘(Dadaism)과 상황주의(Situationism)에 의해 촉발된 196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예술가로서 자족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화되고, 가치로부터 자유로웠던 모더니즘이 가져온 예술적 독립(독점적이고, 상품화되고, 전문화된 예술 세계)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연결된 실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사회적 실천을 하는 예술가들은 참여자가 된 관객들과 혁신적인 관계를 맺고 현장에서 활동한다. 예술가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예술의 역할은 새로운 사고와 감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주의를 끌고 반성적인 재평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고유의 도구이며 촉매제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아닌 대중을 사회적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시각, 정보, 텍스트, 설명, 강의, 무언의 메시지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현상적, 사회적, 담론적인 현장만큼 물리적인 현장도 포함한다.

상황 및 현장으로의 전환에 이어 이루어진 예술의 참여적 전환은 관객을 작품에 물리적으로 참여시켜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참여 예술이 참가자들의 정치적 자율성, 주관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만들어내는 공동

실천,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의 회복을 통한 집단적 책임, 공동체에 상정된 위기에 대한 우려 등 특정한 의제에 동조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공동체에 중심을 두는 참여 예술의 사회 정의와 실천의 정신은 일상적인 교육과 동시에 공동체 참여 및 협력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어 공동체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 예술 분야에서 참여 예술과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들은 모두를 빠짐없이 열거할 순 없지만 활동주의 예술, 항거 공연 예술, 협력 예술, 공연 민족 지학, 지역 사회 극장, 협력 예술, 상황 예술, 관계 예술, 대화적 예술을 포함할 수 있다. 모두 사회적 상호 작용이 예술적 실천을 이끄는 접근법을 공유한다. 반면에 이를 통제하는 힘은 적다. 그리고 예술가와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작품과 사건, 행동을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서 미학적 대상, 이념적 과정 및 개입 전략은 서로 다르며 별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술과 사회가 가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전문가(예술가), 예술적 실천, 참가자, 성과 및 결과 사이에 유동성이 있다.

실천은 과정을 낳고, 실천을 낳는다

사회 실천 예술(Social practice art)을 포괄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면 이 실천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관계를 촉진하고 사회적 상호 작용과 참여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참여 예술(Socially-concerned art)은 사회적 미학의 중심에 위치하며, 여기서 의미는 상호 주관적인 만남을 통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다.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혹은 체화된 사회적 만남의 수행 원칙은 사회 실천 예술의 중심이며, 일상을 다르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실천에 있어 중심이 된다. 여기서 예술가의 역할은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문화를 미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예술의 역할은 청중이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미학적인 것을 넘어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감성을 통해 재평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사회 실천 예술에서는 내재적으로 실천과 과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그 과정 자체가 실천이 된다.

(사회 실천) 예술의 상황

이 실천은 공동체 내 그리고 공동체 간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통한 사회적 만남의 수행적 생산을 말한다. 이것은 다원적인 의미에서 공동 저자인 대중을 포함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공동체의 상호 주관적 교류, 체화된 사회적 지식, 공동체의 상호 관계를 통해 고양된 개인의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은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에서 공동 저자로서 양방향의 촉매제인 '진행자로서의 예술가'가 주도하며, 예술가는 창의적 사상가, 교란자, 협상자로서 그들의 전문성이나 그들의 의제를 숨기지 않는다. 환경이나 기회를 만드는 것은 예술가일 수도 있지만, 유동적이고 언제나 열려 있고 상호 영향을 주는 환경 속에서 실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참가자이다. 이 과정은 인간의 상호 작용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벌어지며, 회의, 만남, 행사 및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협력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 청중은 관찰자가 아니라 협력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이다.

현재 영국의 사회 연계 예술은 지역 개발자 및 지역 의회, 대학 및 예술 학교, 큐레이터 및 박물관, 상업 예술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익 집단에게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실천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개발자가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의 대의권, 지리상의 권력, 계급 권력, 정체성, 건축 정치 및 사회사업의 도구화 문제는 지역 사회의 대화를 촉발하고, 심지어 주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관적이며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개발자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실무자는 그들이 이런 힘을 전복하고자 한다고 반박한다고 해도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도시 브랜딩 캠페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상업 예술 세계에서도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통합시키는 작품들을 수집 또는 매입한다. 이때, 예술가가 스스로 그것을 사회적 실천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실천은 비엔날레 운동의 일부이기도 하며 리버풀 비엔날레의 프로젝트였던 잔느 반 히스웁(Jeanne van Heeswijk)의 홈베이커드(Homebaked, 2012-)를 예로 들 수

있다. 미술관은 그러한 작품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실천 프로그램과 공간을 운영하고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질문 제기하고 강화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영국의 사회적 실천 부문의 이런 주목받는 공공성에 대한 응답은 공공의 정신을 공유하고, 그러한 주목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포용하고, 실천과 실행자를 재편성하고, 견해를 반영하고 결집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은 매우 구체적인 사안, 관찰 및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의 최전방에서 활동한다. 예를 들어 이주와 같은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운동가적 활동, 직접 행동, 대안 조직, 도시 프로젝트, 편견 와해를 위한 작업, 집단 학습 등을 이용한다. 분야별 예술가들과 조직들은 과단성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함께 참여한다.

영국 예술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목적과 목표를 가진 크리에이티브 피플 앤 플레이스(Creative People and Places)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지원하였다. 그중 하트 오브 글라스(Heart of Glass) 프로젝트는 최근 영국 남서부 지역 플리머스 세인트 헬렌스에서 3년마다 트리엔날레를 열기로 했으며, 테이트 어

파트(Tate A Part)가 기획한 '소셜 메이킹: 사회 연계 예술의 실천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비엔날레 심포지움에서는 이를 동안 예술을 통한 사회 실천 방법과 영향들이 국제적으로 소개되었다.

2016년, 일린 리(Eelyn Lee)와 알 엠 산체스-카무스(R.M. S nchez-Camus)라는 두 명의 예술가는 사회 실천과 예술 분야의 담론을 확장하고, 단체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소셜 아트 네트워크(Social Arts Network)를 설립했다. '현재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하는 예술 활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위해 2018년 셰필드에서 첫 전국 모임을 시작했고, 현재 영국 전역에 6개의 도시에 지부가 생겼으며 영국 사회 참여 예술 비엔날레를 계획하고 있다. 굴벤키안 재단(Gulbenkian Foundation) 및 폴 햄린 재단(Paul Hamlyn Foundation)의 후원을 받는 런던의 배터시 아트 센터(Battersea Arts Centre)는 사회 참여 예술 실천을 위한 지식 공유 네트워크 코크리에이팅 체인지(Co-Creating Change)를 지원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전국에 걸쳐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그 지역에서 직접 의뢰하여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들어가기 (재정립)

사회 연계 예술은 현재 현대 예술의 중요한 측면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 예술 분야는 예술 기관, 정부 기금 지원 기관 및 점점 더 많은 민간 기업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정부 후원의 자금 투입으로 인해 사회 실천 예술이 영국의 지역 사회 커뮤니티 예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였고, 사회 실천 예술이 요구하는 현장성을 가지고 시민과 지역 사회에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술 기관에 주목하게 되었다. 예술이 보여지고 전시되는 방식의 변화는 집단적, 자기 조직적, 비공식적이며 참여적 예술 작품이 제작되어진 궤적과 일치한다. 그리고 영국 사회 전체에서 공공 공간, 참여, 협력 및 집단행동을 둘러싼 공공의 담론과도 일치한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이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장소가 되었으며 그 실천의 기록과 재해석, 기관의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의 재검토를 해야만 한다. 영국의 사회적 실천 예술 분야는 그 실천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대를 맞았다.

(2019년 2월 작성)

테이트 익스체인지

2016년 설립된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는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장으로 동시대의 문제와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의 공간 및 프로그램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예술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연례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예술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열린 실험이 가능한 장소이며, 예술적 실천과 과정에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테이트 익스체인지의 프로그램은 관객을 공동 작업자로 초청하여 프로그램의 활동 및 결과를 만들어 낸다.

사례 1.

매직 미 (Magic Me)

<https://magicme.co.uk/>



매직 미(Magic Me)는 예술을 통한 세대 간 교류와 공감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결속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1989년에 설립된 자선단체이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탐색하고 나누는 도구로 예술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함께 융화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런던 동부의 타워 햄릿 지역을 중심으로 8세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 그리고 88세 이상의 노인을 공동체의 동등한 자산으로 보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창의적인 목표하에 함께 어울리며 연령 간의 다름과 같음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인식하여 상호 배움과 즐거움, 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직 미의 핵심 활동은 젊은 세대가 양로원을 방문하여 노년층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대화와 협업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 예술가들의 주도하에 음악, 춤, 연극, 문학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매직 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예술적 성과와 개인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 개발이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두 명의 전문 예술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예술 방식을 접목한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기획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심자들을 독려하고

실수를 허용하는 예술적 과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작품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참가자의 인적 개발을 위해 가장 유의하는 점은 세대 간에 가르침의 주체와 객체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특정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활동을 마쳤을 때 노인 혹은 젊은이라는 세대적 정체성 외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 개발을 위해 예술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에서 나누고, 공연에 지인이나 친구, 지역 주민을 초대하고 있다.

이 같은 매직 미 활동에 적용하는 네 가지 원칙으로는 세대 간 공감을 주제로 하되 모든 이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며, 양질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 세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적 경험이 있거나 기량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두의 잠재력이 무대 위에서 발현될 수 있는 방법과 작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단순한 참가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로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류 활동을 추가적으로 고안하며, 작업이 참가자의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결과물로 이어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예술가의 전문성이 타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매직 미가 각 프로젝트와 활동에서 꼭 다루고자 하는 다섯 가지 정서는 목적의식과 장소감, 모험감, 상황감, 그리고 성취감이다. 목적의식은 참가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논의하며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 작품에는 참가자들이 사는 공간 혹은 작업하는 지역의 요소가 반영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적 모험에서부터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삶의 새로운 시도를 경험하는 생의 모험을 거치며,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특별함과 상황감을 온전히 느끼고 모든 과정의 끝에 성취감을 느끼며 모든 참가자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한다.

프로젝트 사례 1: 데코룸 (Decorum)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좋은 행실’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로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좋고 나쁨, 그리고 매너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세대별 여성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런던, 사우스엔드, 피터버러 세 지역에서 진행된 영상 프로젝트이다. 각 지역별로 3-4명의 예술가가 고등학교에서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을 매주 함께 만나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고,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며 총 세 편의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런던에서는 세대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성들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길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의 반응을 살펴보고, 사우스엔드에서는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규칙을 어겼을 때 타인의 허용 정도와 감정에 집중하여 보편적인 예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조명하였다. 피터버러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행실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구와 가족, 연령이 다른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며 그간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데코룸 (출처: 매직 미 홈페이지)

“거리 사진 활동을 통해 사진을 찍고, 책을 만드는 법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이 동네에 26년을 살았지만, 우리 동네에 주조 공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옥상 정원이 개방되어 있는지도요.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과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고 싶은 호기심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포토워크 참가 부모

프로젝트 사례 2: 포토워크 (Photowalks)

거리 사진 프로젝트 포토워크는 런던 브릭레인 지역 내 크라이스트처치 초등학교의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기점으로 여섯 방향으로 약 30분간 나아가는 길목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동네를 재발견하는 프로젝트이다.

책자 제작을 위해 평소에 스쳐 지나가던 건물이나 기관, 시설들의 운영 설립 의의와 운영 목적을 알아보고, 방문객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지역의 자산을 탐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진가가 매주 사진 촬영 기법 등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였고, 약 5개월에 걸쳐 수업과 책자 제작이 진행되었다.



포토 워크 (사진 출처: 매직 미 홈페이지)

프로젝트 사례 3: 룸즈 워드 어 뷰 (Rooms with a View)

‘런던 동부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랜 세월에 걸친 런던 동부지역의 이야기들을 모두 담고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타워 햄릿 지역의 노년 여성과 중고등 학생이 주축이 되어 300명에 달하는 전 연령대의 지역 거주자를 인터뷰하고, 동네 골목골목의 기억과 목소리를 수집하는 연구 단계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런던 동부에 관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지역의 사진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로 담은 구술 역사를 전시로 개최하였고, 세대별 지역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에서 공유되는 이야기와 숨은 대화들, 삶의 단계와 경험에 따른 다양한 장면들을 한 폭에 펼쳐내는

몰입형 연극을 제작 및 공연하였다. 또한 영국 퀸 메리 대학교와의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 과정을 기록한 물론, 예술을 통해 같은 지역에 사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촉진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적인 도구와 구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시행하였다.

매직 미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대간 대화촉진 방법과 다른 연령대 사람들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예술 제작법, 실화를 공연으로 증폭하는 방법 등에 대한 추가 트레이닝을 제공하였다.



룸즈 워드 어 뷰 (출처: 매직 미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Q. 예술가가 매직 미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A. 매직 미의 모든 프로젝트는 예술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재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프로젝트 당 두 명의 예술가가 함께합니다. 매직 미에 먼저 일을 제안하는 예술가가 있기도 하고, 매직 미가 필요에 따라 예술가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예술가들의 기술 개발과 질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각자가 일하는 방식이나 노하우를 나누고, 창의적인 평가 도구를 함께 개발하는 등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트레이너를 섭외하여 공동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예술가가 참여 예술 작업에 경험이 있지는 않기에, 두 명이 팀이 되어 신진 예술가가 경험 있는 예술가와 협업함으로써 배우는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예술 형식이 있을까요?

A. 같은 예술 형식이더라도 어떻게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지, 그리고 개별 워크숍의 참가자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예술의 형식별 강점에 대해 말하자면 예컨대, 개별 활동으로 시작할 경우 사진 작업이 도움이 되고,

개별 활동과 집단 활동이 모두 가능한 형식으로는 무용과 노래가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내면 밖의 것을 집중하고자 할 때는 인형극 등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술 형태별 강점과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직 미의 연구 자료인 디테일 앤 데어링 (Detail and Daring, 20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s://magicme.co.uk/download/detail-and-daring/>

Q. 기금 모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사회통합을 위한 예술기금을 지원해온 영국 내 기관으로는 영국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복권 기금 (The National Lottery), 배링 재단 (The Baring Foundation) 등이 있고, 저희도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기업이나 학교, 양로원 등에 파트너십을 제안해서 기금을 모아 사업을 운영합니다. 트레이닝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 참여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고, 대형 극장에서 공연할 경우 티켓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편입니다.

Q.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A. 보통 프로젝트가 10주간 진행되는데, 근래에는 단발적인 프로젝트보다는 커뮤니티 센터나 양로원, 학교 등 기관과 3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협력 기관의 직원, 사회복지사,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첫해엔 참여 예술 활동을 배우고, 둘째 해에는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매직 미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형태로 매직 미와의 파트너십이 끝난 이후에도 파트너들이 참여 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같은 형태로 매직미의 활동 방식이 널리 보급되고, 영국의 더 많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참여 예술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매직 미는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와 협업하나요?

A. 기획 과정부터 참가자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예술가가 주제와 구조를 결정한 뒤 참여를 제안하는 형태까지 참여 예술의 수준은 매우 상이합니다. 참여 정도와 방법에 따라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 사회 연계 예술(Socially Engaged Art), 협업 예술(Collaborative Art) 등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전반적으로 혼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직 미는 전문성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진행하는 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참가자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작품에 계획하는데 집중하며, 예술을 통해 유년, 청년, 노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빛나게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협업을 제안할 때 기획자가 어느 정도의 계획과 틀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사람들의 좀 더 손쉬운 참여를 장려한다고 생각합니다.

Q. 사회참여 예술 혹은 예술을 통한 세대 간 교류 작업을 계획하는 예술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면, 그들의 예술 작업이 타인의 참여를 통해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참가자를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지식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예술가의 경험과 생각, 영감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술적 기량도 높아져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사례 2.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Royal Exchange Theatre)

<https://www.royalexchange.co.uk>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출처: 로열 익스체인지)

맨체스터에 위치한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은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 극장/극단이다. 1976년 처음 문을 연 이래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이곳의 독창적인 공연들은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내 실력 있는 공연예술가 및 기획자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젊고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은 공연 제작 및 상영과 더불어, 지역 주민 및 협력 기관들과 다양한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연계된 스쿨 앤 컬리지(Schools & Colleges) 프로그램을 비롯해 관객 및 예술가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극단(Elders Company)과 청년 극단(Young Company)을 꼽을 수 있다. 2014년에 시작된 어르신 극단(Elders Company)은 매주 강의를 비롯해 극단 관계자 멘토링, 그리고 실제로 연극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극단의 단원이 되면 무대 연극 기술을 배우고 스토리텔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워크숍은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내의 전문 연극인들이 함께하며, 신체 움직임, 인형극, 발성, 극본 수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단원들은

고령 친화 도시 맨체스터

맨체스터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북서부 잉글랜드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비슷한 크기의 다른 많은 도시와는 달리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 많은 학생들과 젊은 전문가들이 학업과 일을 위해 모여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맨체스터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고령 인구를 가지지만, 이 고령 인구는 더 고립되고 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맨체스터 노인의 36%는 저소득층이며, 59%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다. 또한 맨체스터에 사는 남성의 기대 수명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경험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을 초래한다.

맨체스터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촉진하고자 2003년 고령 친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9년 '나이 들기 좋은 도시(Great Place to Grow Older)'라는 고령 친화 전략을 발표하며, 영국 최초로 고령 친화 도시가 되었다. 이 전략에는 도시 내 30개의 문화 예술 기관이 좀 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인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 예술인들과 협업하거나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의 주요 공연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차별적인 기회를 가진다. 극단은 맨체스터를 포함한 근교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년 극단원 25명~35명으로 구성되며,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실제 연극 작품을 만들게 된다. 나이 들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어 가고 있는 어르신 극단은 고령 친화 도시 맨체스터시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은 어르신 극단 외에도 연극 및 무용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워크숍 엘더스 먼데이(Elders Mondays)를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이 워크숍에서는 연극의 작법, 연기, 제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창의적 글쓰기와 토론 워크숍인 엘더스 인베스티게이트(Elders Investigate), 노인들이 컨퍼런스 및 지역 이벤트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엘더스 챔피언스(Elders Champions)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극단(Young Company)은 14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열려 있는 1년간의 레지던시 형식의 극단이다. 청년 극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제작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메이커스(Makers), 라이터스(Writers), 퍼포머스(Performers), 영 콜렉티브(Young Collective) 그룹으로 나뉘어 연기, 극장 기술 운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연출, 작문 및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며, 직접 작품을 개발하고, 창작할 수 있다. 극장 내의 전문 인력이 멘토링을 제공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여름 공연을 만든다.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 듣고 나니,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졌다.”

– 청년 극단 회원

프로젝트 사례 1: 세대 교류 프로젝트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내 프로그램들은 세대 간 교류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극장 내 청년 극단(Young Company)과 어르신 극단(Elders Company)의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 극단의 단원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포럼 및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하고 공동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2015년 맨체스터 아동 도서 축제(Manchester Children's Book Festival)와 협력하여 3-8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두 극단의 협력 작품 플리커와 플라잉 북(Flicker and The Flying Books)을 선보였으며, 2017년에는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The Space Between Us)를 제작하였다.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는 두 극단의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 느낌,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서로의 움직임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 (사진 출처: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웹사이트)

“도심에 있지 않은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는 꼭 필요하다. 다양성을 증진하고 좀 더 넓은 사고와 성장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한다.”

– 그레이터 맨체스터 태임사이드 주민

프로젝트 사례 2. 로컬 익스체인지 (Local Exchange)

로컬 익스체인지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이 맨체스터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레지던시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사람과 장소, 예술가들을 한데 모아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극장은 매년 주택 협회, 도서관, 푸드뱅크(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 예술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3년간의 레지던시를 통해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협력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에 애정을 가진 지역의 대표자들을 모집하여 지역 사회에 맞는 프로젝트, 워크숍, 공연 및 행사를 기획한다.

더 덴(The Den)은 팝업 극장으로 로컬 익스체인지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독창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이 팝업 극장은 지역 주민들이 배우고,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창의적 허브로 공간 안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지역 내 레지던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더 덴은 워크숍 및 공연을 위한 장소가 되고, 이곳에서 레지던시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작품들을 모아 페스티벌을 열기도 한다. 또한,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의 공연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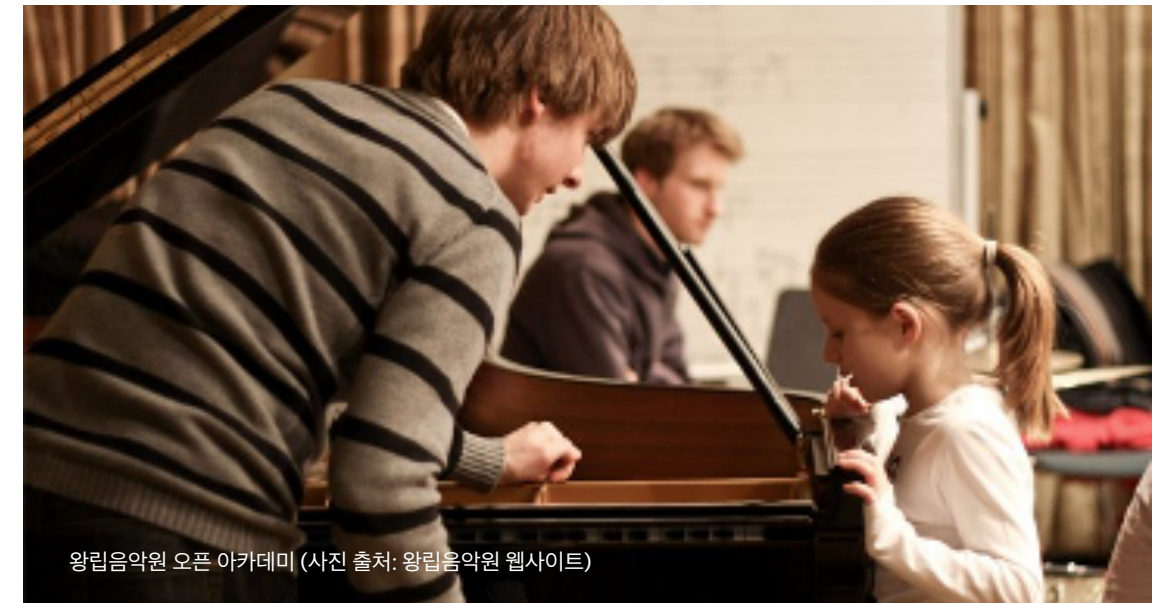
팝업 극장 더 덴 (사진 출처: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웹사이트)

로컬 익스체인지 프로젝트의 하나인 카드
보드 캠프 맨체스터(Cardboard Camp
Manchester)는 카드 보드 시티즌(Cardboard
Citizens)과 협력하여 노숙자 또는 노숙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포럼 및 연극을 포함한
창조적인 예술을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 변화와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량 강화
프로젝트였다. 공연에는 참가자의 가족 및 친구를
비롯해 지역 사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여,
패널 토론을 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예술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탐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온 탑 오브 더 월드 (On Top of the
World)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 임대 아파트 사는 주민들의 예술과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해에 참가자들은 런던 공공 임대 아파트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로 인해 직면한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두려움, 요구, 도전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작품 ‘캔 유 히어 미 프롬 업 히어 (Can you hear
me from up here)’를 제작하고 직접 출연했다.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빈곤층의 경험과 공공 임대
주거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편견 및 낙인,
그리고 그들에 대한 태도를 탐구하였다.

사례 3.

왕립음악원 (Royal Academy of Music)



왕립음악원 오픈 아카데미 (사진 출처: 왕립음악원 웹사이트)

클래식 음악 역사에 있어서 영국의 참여 예술과
음악에 대한 역사는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클래식 음악은 악기를 다루거나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많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두고 활동했다.
바흐는 그가 일했던 교회의 음악가들과 일반
신도들을 위해 칸타타(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바로크 시대에 발전한 성악곡의 한 형식)를
작곡했으며, 랄프 본 윌리엄스(Ralph Vaughan
Williams), 구스타브 홀스트(Gustav Holst),
마이클 티펫(Michael Tippett),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Peter Maxwell Davies)와 같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많은 음악가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예술성과 음악성에 대해

고민하였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했다.

1970년대에 들어 크리스토퍼 스몰(Christopher
Small)은 음악하기(Musicking)라는 용어를
통해 음악이 연주 행위와 청취 행위,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형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음악적 기술의 연마나 음악적 기술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발굴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디스커버리(LSO Discovery)와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며,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음악의 의학적 혜택 또한 주목받았다.

예술과 창의성이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생겨나면서 전문 음악가들도 콘서트에 와서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관객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참여적이며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은 영국 및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음악 교육 기관인 왕립음악원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의 젊은이들 및 소외된 커뮤니티가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참여적 추진체인 오픈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 음악인과 커뮤니티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오픈 아카데미는 매년 35~4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6,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한다.

오픈 아카데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음악을 만드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모든 프로젝트는 숙련된 전문가가 주도한다. 오픈 아카데미 프로젝트는 음악가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도록 한다. 참가자에는 주류 학교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특수 교육나 장애 교육 환경, 병원이나 요양원에 머무는 사람들 및 직원, 주간 보호 센터에 다니는 사람들 등이 포함된다.

오픈 아카데미는 뮤직 허브(Music Hub)와 같은 지역 사회 자선 단체 및 예술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사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받는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거나 치매 환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의 관객들을 위한 콘서트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헨델의 수상음악을 연주하거나 치매 환자들과의 공동 창조 및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한다.



뮤직 포 더 모먼트
(사진 출처: 위그모어 홀 웹사이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시작된 뮤직 포 더 모먼트(Music for the Moment)는 왕립음악원에서 위그모어 홀(Wigmore Hall), 레조네이트 아트스(Resonate Arts) 및 세인트 메릴본 교구 교회(St. Marylebone Parish Church)와 협력하여 여는 월레 콘서트이다. 콘서트는 무료이며 치매 환자, 그들의 친구,

가족 및 간병인들이 함께 보러 올 수 있다. 이 한 시간의 콘서트는 치매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콘서트홀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며 관객은 언제든지 입장과 퇴장이 가능하다.

왕립음악원의 학생들은 오픈 아카데미를 통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 음악적 기술 및 자신감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그들이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어떤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오픈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커뮤니티와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콘서트장이나 녹음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경험한다. 커뮤니티의 교육, 포용성,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음악가로서의 자부심, 탄력성을 기른다.

“치매 환자들의 정서적 연약함이 오히려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술적 창의성이 확대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치매 환자, 가족, 그들의 간병인뿐 아니라 음악가들과 다른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주었다.”

– 참여 예술가

프로젝트 사례 1: 위드 올 (With All)

위드 올(With All) 프로젝트는 영국 박물관 웰컴 컬렉션에서 진행했던 크리에이티드 아웃 오브 마인드(Created Out of Mind)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 창작(Co-creativity) 예술 프로젝트이다. 크리에이티드 아웃 오브 마인드는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다학제 융합연구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왕립음악원의 오픈 아카데미 학장 줄리안 웨스트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노인학을 연구하는 한나 젤리그 박사와 함께 위드 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역사적으로 창의력은 개인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창의력이 개인의 주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회 관계망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위드 올 프로젝트에는 10주 과정으로 3명의 음악가, 2명의 무용수, 2명의 연구원이 치매 환자들 및 보호자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예술이 치매 환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면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수의 예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은 예술을 도구로 사용할 뿐 예술 자체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창의력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위드 올 프로젝트 (출처: 오픈 아카데미 웹사이트)

“이 프로젝트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을 아내의 따뜻하고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 프로그램 참가자 가족

위드 올 프로젝트는 즉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창조적인 작업, 자발성 및 즉흥은 기억과 회상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즉흥성은 개인이 방어기제나 습관을 버리고 타인과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정적으로 결과물보다는 과정, 공유 경험, 관계로 가치를 이동시킨다.

즉흥성과 더불어 리더의 부재는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공동 창작은 다수의 창작자를 필요로 하므로 다양한 예술 창작 방법 중에 가장 민주적이고 비계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치매 환자가 관계, 경험, 보살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치매 환자들만 아니라 함께하는 예술가들도 서로 빠르게 교감할 수 있었고, 이는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음악가들이 요양원에서 즉흥 연주를 통해 치매 환자들과 공동 창작을 함께했을 때, 요양원의 직원들과 종종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종종 치매 환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그들의 웰빙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병인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을 통한 공동 창작은 간병인들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대상에서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인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간병인들은

자신들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 치매 환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 이는 간병인에게 좀 더 자기충족적이며, 그들의 업무 능력도 향상된다. 또한 직원들 사이의 교류와 공유가 가능해진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중에 간혹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치매를 위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종종 치매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의 완화를 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런 종종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종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력하다. 실어증으로 인해 언어 능력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던 한 치매 환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했던 음악 그룹에 막대한 예술적 공헌을 했다. 같은 그룹의 한 여성은 심각한 시각 손상 때문에 항상 남편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왔지만, 항상 악기를 연주하고 혼자 춤을 추며 즉흥 창작에 있어 그룹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위드 올 프로젝트는 종종 치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공감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참여자 모두를 풍요롭게 했다.

프로젝트 사례 2: 스쿨 프로젝트 (School Projects)

왕립음악원은 오픈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대중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클래식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 프리 온 프라이데이 (Free on Friday)는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양상블 프로젝트 퍼커션 오케스트라(Percussion Orchestra)는 오픈 아카데미와 시티 라이트 오케스트라(City Lit Orchestra)와의 협력으로 연중 내내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학습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 음악인 및 학습 장애 학생 모두 참가자로서 동등하게 작업한다. 또한 작업을 페스티벌 및 콘서트홀에서 전문적으로 선보인다.

2018년 월러스 컬렉션(Wallace Collection)과 협력하여 진행한 디스커버링 브라스(Discovering Brass) 프로젝트에서는 3개 초등학교에서 온 90명의 학생들이 12주간의 트럼펫 워크숍을 갖고, 오픈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공연하였다. 음악 학교에 입학하거나 음악가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년간의 훈련을 수반한다. 이런 점 때문에 젊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종종 학교 내 음악 수업을 지원하거나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일도 필요하다. 브리지 프로젝트 (Bridge Project)는 클래식 음악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젝트이다. 브리지 프로젝트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런던 내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장기적인 음악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재능 있는 어린 학생들이 추후 고등 음악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



퍼커션 오케스트라 2019 (출처: 시티 라이트 대학 웹사이트)

사례 4.

휘트워스 갤러리 (Whitworth Gallery)

1889년 설립된 휘트워스 갤러리는 사용자와 갤러리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예술 기관이다.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공간과 자원으로 예술을 사회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예술을 좀 더 유용하게 만들고자 한다. 19세기 맨체스터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첫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휘트워스 갤러리는 교육 및 사회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현재는 맨체스터 대학의 한 부분이다.

휘트워스 갤러리는 진정한 시민 미술관으로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 시대의 긴급한 문제들을 고찰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시회, 공공 프로그램, 연구 및 협력을 통한 배움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 방법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휘트워스 갤러리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 친화 도시 맨체스터 시의 협력 예술 기관으로 휘트워스는 지난 10년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인들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고령 친화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이 쉬운 노인들을 위한 워크숍 및 참여 프로젝트를 포함할 뿐 아니라 리서치와 간행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노인들을 위한 문화 참여를 위한 핸드북 (Handbook for Cultural Engagement with Older Men)’ 과 ‘치매 환자를 위한 문화 참여 핸드북 (Handbook for Cultural Engagement with People Living with Dementia)’은 그동안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도시 내 소외된 커뮤니티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행되었다.

갤러리를 직접 방문하기 힘든 치매 환자 및 간병인들을 위해서는 아트 센스 (Art Sense)라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11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그룹인 휘트워스 영 컨템포러리즈 (Whitworth Young Contemporaries)는 예술과 새로운 아이디어,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모임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행동주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프로그램에는 음악, 공연, 시각 예술 및 신진 예술가들이 이끄는 워크숍, 토론회 등이 포함된다.



휘트워스 갤러리 (출처: 휘트워스 갤러리 웹사이트)

프로젝트 사례 1: 비온드 디멘시아 (Beyond Dementia)

2016년 휘트워스 갤러리와 영국 맨체스터 치매 지원 공동체 투게더 디멘시아(Together Dementia)의 활동가 그룹인 패블러스 포겟풀 프렌즈(Fabulous Forgetful Friends)가 협력하여 진행한 비온드 디멘시아 프로젝트는 치매 환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화를 장려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그들의 적극적인 시민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휘트워스 갤러리는 인지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과 일한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접근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이 워크숍의 진행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훈련되었다.



비온드 디멘시아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독려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지원하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와 관련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예술 작품을 탐구하고 실제로 예술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치매 환자들에게 자기표현의 창구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의성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주었다. 결과물은 전시회로 기획되었다.



비온드 디멘시아 전시 작품

프로젝트 사례 2: 커피, 케이크, 문화 (Coffee, Cake and Culture)

커피, 케이크, 문화는 휘트워스 갤러리와 맨체스터 박물관이 기획한 치매 노인과 그 보호자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박물관과 갤러리 컬렉션을 상상력, 창의력, 학습의 공간으로 이용한다. 커피, 케이크, 문화는 예술과 문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회상보다는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의미를 가진 많은 예술품들은 치매와 그들의 보호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으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the Whitworth

Coffee, cake and culture

Making culture accessible to people living with dementia and their carers

We offer fully supported museum visits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members or care partner. The aim of the programme is to provide a stimulating social learning environment where people with dementia and carers share their visit, experiences and memories. Reawakening the mind and connecting to the world around us. Museums and galleries give us a chance to be creative and imaginative. Specially trained museum staff guide visitors around the exhibitions highlighting collections and objects to engage with during an interactive programme in the galleries. The exhibition visit is followed by coffee and cake with an opportunity for conversation.

- Quality time for the person with dementia and their carer
- Promotes creativity and imagination
- Prevents social isolation
- Provides meaningful, age appropriate and stimulating activity
- Encourages all to focus on the person and not on the illness
- Enhances communication and enables connections to the world around us

This 2 hour session is free on Thursday's, 2-4pm
28 January, 25 February, 31 March, 28 April, 26 May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Wendy Gallagher:
wendy.gallagher@manchester.ac.uk or 07920 595772

Dementia Friends

the Whitworth,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Oxford Road, Manchester M13 9PL
www.whitworth.manchester.ac.uk
Book & access details

Proud to be part of
MANCHESTER 2024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City of Manchester

커피, 케이크, 문화 (출처: 휘트워스 갤러리 웹사이트)

프로젝트 사례 3. 스틸 페런츠 (Still Parents)

스틸 페런츠는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아기를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미술 워크숍이다. 자선 단체인 샌즈(Sands, Stillbirth & neonatal Death Charity)의 지원으로 예술가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탐색해 본다. 예술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스틸 페런츠 워크숍, 2020 사진: 루시 터너

사례 5.

한영 교류 프로그램 -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무용

커뮤니티 댄스는 지난 30년간 영국에서 급성장한 춤의 장르로 테크닉에 치우친 춤보다는 참여를 통해 춤을 배우고, 추고, 만들고, 공연하고, 보고, 이야기하는 경험을 모두 말한다. 커뮤니티 댄스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여부, 교육의 정도,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안전한 범위 내에서 창조적으로 여러 춤의 형식과 아이디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1980년 이전에는 춤이 전문가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벽이 높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춤의 사회적 기능이 주목되며 대중의 춤 추려는 욕구를 수렴하고 예술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 댄스가 생겨났다. 무용은 건강 및 웰빙,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 및 참여 의식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무용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 주며 넓은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를 북돋는다.

무용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현력을 확대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이는 결국 삶을 긍정적, 주도적, 창의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함께 창작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은 개인적 발전에서 나아가 사람들이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커뮤니티 댄스에서 추구하는 바이다.

영국에서는 무용 활동이 무용 스튜디오뿐 아니라 시청, 병원, 클럽, 커뮤니티 센터, 아트 센터 및 전문 의료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다. 영국은 또한 노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 센터에서도 다양한 무용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파킨슨, 치매 및 암과 같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전문가 수업도 있다. 무용이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을 비롯해 노인들에게도 이로운 활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국문화원은 2019년 가을, 경상북도청과 함께 영국의 무용 전문가 다이앤 애먼스와 야스민 바르디몽을 초청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무용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영국의 유명 안무가 야스민 바르디몽은 안동에서 40세 이상 일반인들과 함께 창작 무용 워크숍을 진행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내었으며,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다이앤 애먼스는 예천 지보면 상월리의 노인 20여 명과 함께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사례 1: 안동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창작 무용 워크숍

안무가 야스민 바르디몽이 안동 시민과 함께 진행한 창작 무용 워크숍은 참가자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창작 무용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무용으로 창작되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예술가 역시 다른 세계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가위질하는 모습, 시장에서 떡을 만드는 모습, 비빔밥을 비비는 모습, 한지를 만드는 과정 등에 영감을 받은 움직임들이 한 편의 안무로 만들어졌고, 참가자들이 이를 자신들의 몸짓으로 표현해내는 경험을 하였다. 가면 속의 나라는

주제 아래 사회적 문화적으로 감추어 왔던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안동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창작 무용 워크숍 © 주한영국문화원

프로젝트 사례 2: 예천 상월리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예천 상월리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 주한영국문화원

경상북도 예천 상월리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은 무용 활동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노인 20여 명과 함께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다이앤 애먼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참여자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하여 참여와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참가자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마을 회관에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신들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르쳐 준 동작을 따라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예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창조성을 경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개인의 웰빙과 공동체의 결속을 경험하였다.

사례 1.

한국의 참여 예술 사례 안정리 프로젝트



안정리는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가 주둔하였던 평택시에 위치한 마을이다. 2015년에 계획된 K-6 미군 기지의 이전 확장을 대비하여 평택시가 2012년도에 시행한 ‘지역 문화교류 기반 구축전략 실행 상 새 계획 수립 조사연구’ 결과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필요성과 주민들의 미군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다음 해 평택 시청이 경기문화재단에 의뢰하여 3년간 지역 문화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기존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개발의 붐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염두하여 문화를 통해 주민과 상인, 미군과 마을이 함께 활력을 찾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논아트 발아트(nonArt, butArt) 공공예술 프로젝트팀은 공공재단과 예술기관이 매칭하여 예술가가 지역에서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마을 자원 발굴을 통한 브랜드 생성하였다.

정해진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기간 중 일어나는 경험이 사업 종료 이후에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협력 기관 간의 목적을 조율하는 작업, 그리고 참여 참여 예술가와 기획자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신중히 고려되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 상인대표, K-6 USO, 캠프 험프리스 공보실 등 안정리의 다양한 지역 조직과 함께 한미문화예술위원회를 조직하였고, 80회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3개년 사업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였다.

1차 연도에는 관계 형성을 통한 이해관계와 교감 생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 워크숍과 예술제를 개최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차 연도에는 자생적인 활동의 기반을 닦고자 지역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시행하여 지역이 중심이 된 다양한 교류 기회를 기획 및 진행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형성하였으며, 마지막 해에는 지금껏 파악된 인적, 물적 자원이 자립하고 브랜드화되도록 지원하였다.

현재까지 지속되는 주요 활동으로는 매월 마지막 열리는 토요 풍물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요구로 만들어진 활동이었으나 사업의 흐름에 따라 지역 특화상품이 만들어지고 주민 참여가 늘어나면서 활동 지속을 위한 지역 내 동기가 매우 높아진 사례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클래스와 워크숍이 열리고 카페가 위치한 지역 거점 공간 아트캠프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제작하고 생성하는 주요 장소로서

이용자들의 자부심이 큰 동기가 되어 활발히 운영되는 장소이다. 세 번째는 거점 공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커뮤니티로 지역주민과 미군이 주체적으로 조직하여 재능 기부와 공유를 통해 활발히 운영되는 팽성 시스타 치어리더, 코스튬 제작실, 시니어 바리스타, 안정리 골목 공방 등이다. 또한 안정리의 마을 브랜드인 마을 예술 상점 이웃상회는 마을의 특징을 담은 37종의 제품(에코백, 쿠션 커버, 견장, MRE 시리즈, 티셔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군 전투식량을 차용한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안정리 프로젝트 이후 지금까지도 한미문화예술위원회와 아트캠프를 거점으로 지역 공동체와 일시적 공동체(미군 가족)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리는 2018년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자산 개발과 주민의 참여 확대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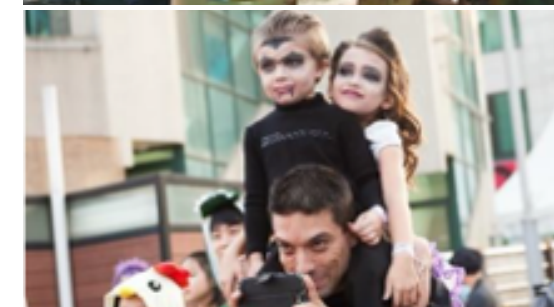
지역 페스티벌



아트캠프와 이웃상회



(출처: 경기문화재단 웹사이트)



사례 2.

스페이스 빔
(배다리)

스페이스 빔은 ‘비움을 통한 꼭 찬 만남’을 모토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마련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조직이다. 관객이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일반 갤러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한 참여와 문화적 공유를 가능케 하고자 2002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처음 문화공간을 연 이래 아카데미, 잡지 발간 등의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페이스 빔이 지역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 시점은 2007년이다. 인천 동구에 소재한 원도심인 배다리 마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건설과 동인천역의 전면 철거 및 개발계획에 대응하고자 동구 금창동에 소재한 오랜 양조장 건물로 이전하였고, 물론 주민들이 꾸린 대책위와 시민모임에 더해 시위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배다리 마을의 가치를 알리고자 토론회와 초청 강연, 축제 등을 개최하며 파괴적 개발이 아닌 마을의 역사를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고 제안하였다.

스페이스 빔이 추구한 대안은 공간, 공동체, 경제, 그리고 생태적 접근이다. 먼저, 공간으로서 배다리 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주택과 장소, 가게와 문화공간, 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한 역사 문화적 자취와 흔적을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동체로서 더불어 사는 배다리 마을의 삶을 실현하고자 내세운 키워드는 비움, 이웃 사랑, 돌봄으로 개발을 두고 주민 간의 찬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의 논리로부터의 ‘비움’을 주창하고, ‘이웃’ 간의 호혜와 배려, 연대와 협력을 내세우며, 마을 내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돌봄’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자본운용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배다리 마을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착한 가게 및 에코투어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을 꾸리기 위해 배다리 마을의 생태교통과 슬로우 시티 가능성을 탐색하고 햇빛, 빗물, 음식물과 같은 자원의 재사용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지역 개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두고 대립이 지속되는 주민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염두에 두고 강조한 노력은 공동체 복원이고, 그 방법은 예술이었다. 배다리 마을의 프로젝트는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요구하는 참여의 정도도 상이하다. 간단하게는 마을 사람들이 손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배다리 송’ 제작이나 마을 음악회, 영화 상영회 개최부터 지역 내 작은 재주들을 살리고자 요일별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요일가게,

배다리 마을 지역 화폐 도입, 공터를 활용한 배다리 에코파크 개장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 등 지역민들과 외부인이 지역에 새로운 흥을 돋우고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삶과 밀착된 다양한 실천 예술과 네트워크 운동을 활발히 모색하고 실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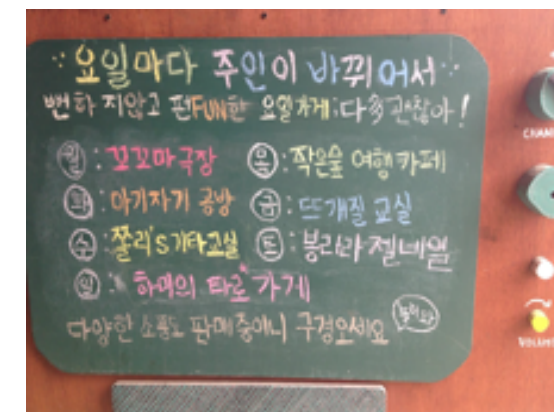
배다리 Song



배다리 빗물 저금통



요일가게



(출처: 스페이스 빔)

배다리 에코파크



참고 자료

Adult participatory arts – Thinking it through. (2010).
London: Arts Council England.

Birchall, M. (2017).
Situating Participatory Art Between Process and Practice.
ARKEN Bulletin, 7.

Great art for everyone 2010-2020. (2013).
London: Arts council England.

Kelly, M. (1998).
Encyclopedia of aesthetics.
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Kelly, O (2984).
Community, Art, and the State: Storming the Citadels, London & New York:

Comedia Publishing Group in association with Marion Boyars

Knell, J. and Taylor, M. (2011).
Arts Funding, Austerity and the Big Society - Remaking the case for the arts.
RSA - 21st century enlightenment, (4).

Matarasso, F. (2015).
All In This Together: The Depolitisation of Community Art in Britain, 1970-2011.
[ebook] ICAF Community, Art, Power.
Available at: <https://arestlessart.files.wordpress.com/2015/09/2013-all-in-this-together.pdf> [Accessed 24 Dec. 2018].

Matarasso, F. (2016).

A RESTLESS ART. [ebook]

Available at: <https://arestlessart.files.wordpress.com/2016/11/a-restless-art-cardiff.pdf> [Accessed 24 Dec. 2018].

O'Dair, C., McAvinchey, C. and Mayo, S. (2012).
Detail and Daring. Magic Me.

Tate. (2018).

Participatory art – Art Term | Tate. [online]

Available at: <https://www.tate.org.uk/art/art-terms/p/participatory-art> [Accessed 24 Dec. 2018].

